

격 려 사

종단의 종책 발전을 위해 힘쓰고
있는 종책모임 화엄회와 법화회가
오늘 종단복지와 종책연구 지원을 위한
선서화전을 개최하는 것을 매우 마음
기쁘게 생각합니다.

예로부터 선서화는 해탈과 깨달음을
향한 수행의 한 방편으로 역대 조사
님들을 비롯한 고승 대덕들이 수많은
작품을 남겨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.

사자일구(四字一句)라, 비록 한 폭의 한지에 단지 네 글자 한 구절이지만 삼독심에 젖은 중생에게는 벽력과 같은 힘이 되고, 때론 지친 현대인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따스한 손길이 되는 선서들은 사실 사바세계를 향한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때론 힘차게, 때론 단정하면서도 엄중하게, 때론 담백하고 깔끔하게 일필휘지(一筆揮之) 써내려간 그 글 속에는 우주만물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비록 먹으로 흠뻑리고 그린

것이지만 달마와 동자승을 그린 서화는 각기 그 개성이 뚜렷하고, 마치 금방이라도 향기를 풍겨올 듯한 꽃들과 곧 살아 움직일 듯한 십장생 등의 모습에는 웃음과 해학이 담겨 있습니다. 옛 스승들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이 선화들에는 중생을 향한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꽃 한송이에 우주의 진리를 담고, 작은 새의 움직임에 생명의 경이를 담았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

**설명하지 않아도, 법회를 통해 장광설을
펼치지 않아도, 글자 한 획, 그림
한 장으로 그 모든 것을 전해 줄 수
있는 선서화는 종단의 복지와 종책
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좋은
선례가 될 것입니다.**

**이번 선서화전을 통해 이미 원적에
드신 큰 스님들의 선서화는 물론
종단의 원로 스님들의 선서화를 만날
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어른
스님들의 체취와 기풍을 새롭게 느낄 수
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이는**

스님들의 뜻에 동감한 여러 스님들이 소장한 작품을 기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.

또한 스님들의 뜻에 동감한 서·화단의 중진작가 여러분들이 작품을 출품하여 그 뜻에 동참하였다고 하니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종단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.

이번 서화전이 사부대중들은 물론 관람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처님의

**가르침을 간명하게 전달하는 훌륭한
포교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.
아울러 이번 서화전이 기금 마련이라는
소기의 목적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
현대인과 소통하고, 불교가 가진
오의(奧義)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
방편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
바랍니다.**

**작품을 기증해 주신 큰스님들과
작가 여러분들, 그리고 이번 선서화전을
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화엄·법화회
스님들에게 다시 한 번 치하와 감사의**

**말씀을 전하며 인사에 대신합니다.
감사합니다.**

**불기2555년 4월 11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